

비관세장벽 모니터링(일본/도쿄지사)

I |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[2021.10월]

1. 한국산 신청 청고추 잔류농약 위반 사례 발생

가) 잔류농약 위반내용

- 수출국 : 일본
- 품목 : 신선 청고추
- 위반성분
 - 헥사코나졸(Hexaconazole) 0.02ppm(일본 기준치 0.01, 국내 0.7)
 - * 2회 적발되어 '21.5.27부터 명령(전수)검사 발동된 성분임(ID업체도 명령검사 진행 중)
- 위반확정일 : 2021.11.25

나) 일본 후생노동성 조치 내용

- 금번 검출된 헥사코나졸 농약은 금년 5월27일자로 한국산 청고추에 대해 이미 명령검사가 발동된 성분으로 추가조치는 없으나 매회 수입시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는 변동이 없음

2. 시사점

- 한국산 청고추는 현재 ID제도 도입 품목으로 기존 ID업체의 경우 협약된 성분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면제받고 있으나, 위반시에는 ID가 삭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됨으로 주의가 필요시 됨
- 최근 계속되는 신선 풋고추류에 대한 위반으로 인해 한국산 농산물 전체에 대한 불신감이 확대될 수 있어 안전성 관리 철저 필요

II |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

1. 일본 소비자청 기능성 표시식품 등록제도 지원

가) 기능성 표시 식품 등록 절차 안내

-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 개요
 -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특정 보건목적이 기대되는 기능성 관여성분에 대해 제조업체가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용기포장에 유효 표시가 가능토록 한 식품표시 제도임
- 제도 등록 장점
 - 임상시험이 필수적으로 필요시 되는 특정보건용 식품에 비해,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소비자청에 근거자료 신고만으로 기능성 표기가 가능함
 - 예를 들어 「눈이 건강해 진다」, 「피부가 예뻐진다」등 통상적으로는 과대광고로 판단되는 선전문구에 대해서도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표기가 가능함

나) 기능성표시 식품 등록 지원 절차

- 관할 기관 : 일본 소비자청
- 등록 주체
 - 일본내 법인등록된 수입 판매자만이 신고 등록이 가능하며, 외국에 소재한 법인의 경우에는 불가
- 기능성 관여 성분에 대한 검증(1단계)
 - 기능성식품의 관여성분 관련 채용후보 논문에 대한 평가 업무 실시
 - 1단계 검토후 등록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사업 종료
- 소비자청 제출 서류 작성(2단계)
 - 1단계 합격된 기능성식품을 대상으로 소비자청에 제출할 연구리뷰 및 각종 신청서류 작성
- 소비자청 제출 신청서류
 - 연구리뷰 및 업체현황, 기능성 관여 성분 시험성적서, 제품 패키지디자인 등 신청서류 소비자청 제출

다) 기능성 표시식품 일본 등록 지원 안내

- (aT)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도쿄지사에서는 현지화 사업 일환으로 일본 소비자청 기능성표시식품등록 지원 업무를 실시 하고 있음
- 지원 대상 : 일본 현지 수입업체만 해당(소비자청에는 현지 판매자만 신청 가능함)
 - 일본 현지 대리점이나 수입업체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를 통해 서비스 신청 필요
- 지원 내역
 - 기능성표시식품 등록을 희망시 aT에서는 신청 바이어를 대상으로 소요비용의 90%한도내 바이어특화사업으로 지원 실시하고 있음으로 관심있는 업체는 많은 이용 바람

III

통관문제사례 관련(대응방안, 사유분석, 경쟁국산 등)

1.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

-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
 -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1. 10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50건이 발생함(식기류 제외)
 - 10월의 한국산 식품위반사례는 냉동야채 잡채 및 신선홍고추에서 잔류농약 위반 각1건 냉동꼬막살에서 E.coil 양성 및 세균수 초과, 찜무에서 첨가물인 안식향산이 대상외 사용으로 위반되어 계 4건의 위반이 발생함
 - 각국에서 수입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잔류농약 및 항균제 등 위반사례가 13건(26.0%),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부적합, 첨가물 위반이 14건(28.0%), 냉동식품 등의 세균수 초과 및 대장균균 검출 등으로 인한 위생위반이 20건(40.0%), 아플라톡신 검출위반 3건(6.0%) 등으로 나타나 위생위반이 제일 많은 건수를 차지함

2.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

○ 중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
- 10월의 중국산 수입식품의 위반건수는 9건으로 세계 각 수입국가중 위반건수가 제일 높았으며. 해외에서 수입되는 전체 수입식품의 위반율중 18.0%를 차지함.
- 신선 스낵팻콩, 냉동브룩콜리, 마늘쫘에서 잔류농약 위반이 각1건씩 발생하였으며, 보일전복, 절임류에서 첨가물 위반 등 계9건의 위반 발생함

○ 태국산 수입식품 위반사례

- 어묵, 냉동홍고추류, 소시지에서 세균수 초과등으로 인한 위생위반이 각 1건씩 발생하였으며, 고춧가루에서 아플라톡신 검출, 신선망고등에서 잔류농약 위반이 발생하여 총7건의 위반이 발생함

○ 대만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
- 발효차에서 잔류농약 위반이 1건, 어묵제품에서 대장균균 양성으로 4건의 위반사례 발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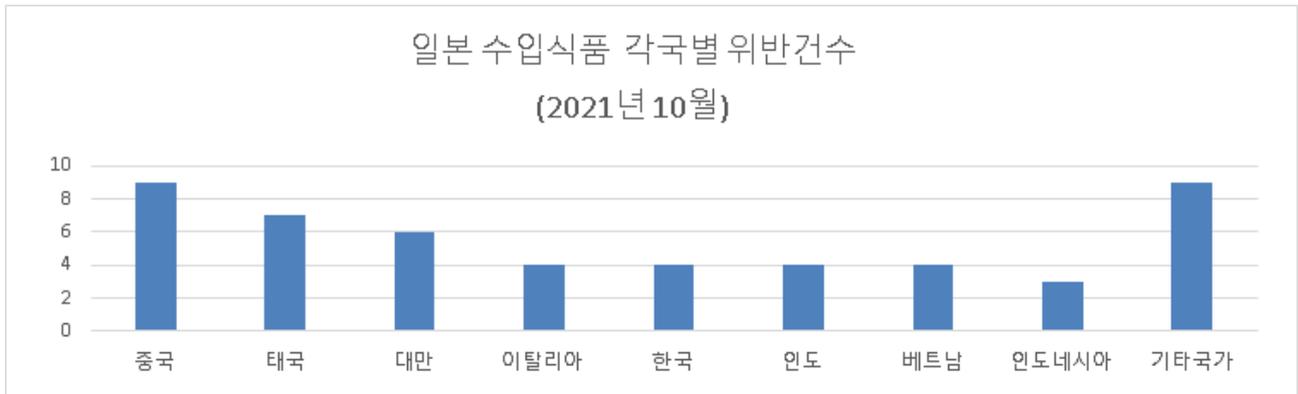
○ 베트남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
- 냉동 컷트망고 등에서 대장균균 양성 등 4건의 위생위반 및 신선드래곤후르츠에서 잔류농약 1건이 발생함

<표1>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

국가명	위반건수	위반율	잔류농약 및 항균제등	아플라톡신	위생	첨가물	기타
중국	9	18.0	3	1	2	3	
태국	7	14.0	2	1	4		
대만	6	12.0	1		4	1	
이탈리아	4	8.0			1	3	
한국	4	8.0	2		1	1	
인도	4	8.0	1			3	
베트남	4	8.0	1		2	1	
인도네시아	3	6.0	1		2		
기타국가	9	18.0	2	1	4	2	
합 계	50	100.0	13	3	20	14	0
비율(%)			26.0	6.0	40.0	28.0	0.0

<표2> 국가별 식품 위반 내역 상세



※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